

與 “상임위장 독식, 전략적 발언 아니다”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법사위·예결위 확보 의지 “식물국회 반복 안돼...당정 3차 추경안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구성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177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의 힘을 바탕으로 사실상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형국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등에는 우리와 같은 개원을 위한 협상이 없다”며 “정해진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정해진 날짜에 개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3대 국회부터 32년간 단 한 번도 정시에 개원하지 못한 것은 부

끄러운 일”이라며 “정치선진국과 ‘K-국회’를 만드는 출발은 국회의 정치개원이다. 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들은 이미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제 정치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국회가 중심이 되어 정치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 K국회, 국회 구성원들이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은 21대 국회 정치개원이다.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성식 정책위의장도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그릇된 국회 운영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식물국회를 반복하지는 말”이라고 거듭

었다. 조 정책위의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는 지난 국회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충선 민심에 따른 책임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 열린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당정은 이러한 기초 위에 3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특히 핵심 상임위원 법사위를 야당이 ‘고수’하려 할 경우 상임위 전석제도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하는 국회추진단장 한경애 의원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겨냥해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원내대표 어깨에서 힘을 빼는 것”이라며 “가장 큰 걸림돌인, 원내대표가 주어진 권한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야당의

경제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설 수 없다”며 “177석만큼의 책임여당 역할을 하도록, 103석만큼의 야당 역할이 되도록 원 구성을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오기 위해 전략을 짜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도 “국회법상 177석의 경우 모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국회의 개원이 진행되어야 한다. 익숙했던 과거와 관행, 파행과 대립으로 민생 경제를 발목 잡았던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로 가야한다”면서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국회를 여는 것이 21대 국회에 국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명령이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낙연 “고용보험 확대, 9월 안넘겨야”

한노총서 간담회...“사회안전망 확충 과제 반드시 해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 극복위원장은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적 전망 확충 과제를 올 정기국회 이후로 넘길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8일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고용 취약계층을 먼저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통계를 보면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들, 여성,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고 있다”며 “앞으로 더 심해질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일자리를 잃거나 쉬게 된 노동자를 도와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해고 억제와 고용 유지가 필요한데 이미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며 “서로 상생하는 최고의 타협이 이뤄지고 실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일자리도 만들어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도 일자리 창출에 주안을 두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

비 일부가 반영돼 있다. 여야가 3차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서 고용자,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간담회 참석 후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등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노동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 안전하고 차별없이 일할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영·한정애·김경협 등 당선인 40명이 참여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부 5대 비전·20대 공동약속’을 실천하고자 모든 분야에서 연대하기로 협약했다.

이후 한국노총은 이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총선 후보 66명을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 후보’로 위촉하고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이중 52명이 당선됐다.

/연합뉴스

“부정 개입할 여지 없어”

선관위, 투·개표 과정 시연

2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끊이지 않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관위가 이번 선거 과정과 동일한 투·개표 과정을 시연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선거인에게 전달되고, 투표함에 담겨 개표소로 이동한 뒤 이 표가 후보자의 득표로 인정되는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시연에는 이번 선거에 사용됐던 장비와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러면서 선거인의 투표지가 모인 투표함이 어떤 방식으로 봉인·운송·보관됐는지 드러내 보이면서 개표 과정에도 각 정당의 참관인이 참여한 만큼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을 분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사무총장에 3선 김영춘 물망

민병두·박수현 등 거론

21대 국회 사무총장으로 3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등이 마하평에 오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28일 “(국회의장으로 추대된) 박병석 의원이 복수의 중진급 인사를 놓고 검토 중”이라며 “후보군은 좁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인

사 가운데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무소속 민병두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이 최근 제안을 받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전략통으로 꼽히는 최 의원은 제의를 고사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민주당 전남도당 오늘 당선인 워크숍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은 29일 광주 상무지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전남 당선인 워크숍’을 연다.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워크숍에서 전남지역 당선인 10명은 김영록 전남지사 등 전남도 공직자와 도정 현안을 논의한다.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도 참석해 당선인들에게 시장 현안을 브리핑하고 주요 시정 관련 당선인들의 협조를 구한다.

이건철 동신대 교수(관광경영학과)는 ‘문재인정부 성공을 위해 블루이코노미를 국가·전남의 성장동력으로’라는 주

제의 특강을 한다.

블루이코노미는 전남이 비교 우위로 품고 있는 자연 자원과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간다는 민선 7기의 새천년 비전이다.

전남도당은 당선인 워크숍에 앞서 이날 오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도당 회의실에서 ‘4·15총선 평가, 전남 유권자의 선택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민들이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 의견과 지역여론을 듣기 위한 자리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1호 법안은 내가 먼저” 당선인들 경쟁 후끈

민주 박광은 의원 보좌진, 법안 제출 위해 4박 5일 대기 돌입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호 법안’의 타이틀을 차지하려는 당선인들의 경쟁이 시작됐다. 이번이 없다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은 의원이 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 의원실 보좌진은 21대 국회 업무가 시작되는 내달 1일 국회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에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28일 오전 7시부터 센터 앞에서 4박 5일간

‘빨치기’(무작정 기다리기)에 돌입했다. 법안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책 수행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이던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회기가 지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도 의원이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박 의원이 수정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 의원이 이번이 가장 먼저 법안을 내게 된다면 법안에는 21대 국회 첫 의안을 의미하는 의안번호 2100001번이 부여된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당선인 측에 ‘제21대 국회 개원 법률안 접수 관련 공지’를 보냈다. 임기 개시일인 30일이 주말이므로 의안접수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 발의 및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전자발의의 모두 업무 개시일인 내달 1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런 진풍경은 새 국회가 시작되는 4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2016년 5월 30일 1호 법안의 영예를 안은 의원은 민주당 박정 의원이었다. 지역구인 파주에 평화경제특별구를 설치하는 법안을 1호로 제출하기 위해 박 의원의 보좌진들은 개원 전날부터 센터 앞 복도에 매트를 깔고 노트북까지 가져와 밤을 새웠다. 19대 때는 보좌진 3명의 사흘 밤샘 끝에 김정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1호 법안 제출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